

# 임실군, 성수산 캠핑장 인기

### 왕조의 건국 설화담은 '왕의 숲' 캠핑명소 주목 내년 1월 중순 '전북캠핑클럽' 22개팀 등 예약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성수산 왕의 숲이 역사적 스토리와 문화와 교육,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캠핑장으로 새롭게 변모,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개장한 후 두 달째를 맞는 성수산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이 캠핑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왕의 숲 캠핑장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최근 여행트렌드에 힘입어 캠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운영 7주째인 현재까지 512팀 등 전국 각지에서 약 2,000명이 왕의 숲 캠핑장을 찾았다. 내년 1월 중순에는 2만3천여명의 회원을 둔 '전북캠핑클럽'에서 22개팀 100여명이 왕의 숲 캠핑장에서 정기캠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55번지 일원에 위치한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14면), 카라반(6동), 캐빈하우스(4동)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와 휴양문

화 정착을 위해 조성되어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카라반과 캐빈하우스는 내부에 기본적인 물품이 갖춰져 있어 장비 없이도 누구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캐빈하우스는 편백나무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주변에는 북카페와 잔디광장, 숲속놀이터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교육을 겸비한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캠핑장 위탁운영을 맡은 두산임업(유) 황중하 대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가족 단위 즐길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캠핑들에게 호감을 산 덕분인 것 같다"며 "최근 숲해설업 등 폭도 완료하여 향후에는 상이안 관광과 연계하여 캠핑객에게 교육적이면서 유익함 등을 더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고려 왕건과 조선 이성계가 기도를 올려 임금이 됐다는 설화를 담은 성수산은 성스러운 왕의 숲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며 "이곳에 새롭게 조성된 캠핑장이 역사와 교육,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육경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 의견관광지, 관촌 사선대 등과 함께 임실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캠핑장

(사진=임실군청 제공)

## 남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홍보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남원소방서(서장 소재)는 겨울철 난방 기구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했다.

이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들

철부채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재일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열쇠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기센터, 8일까지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8일까지 남원시 외식산업에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푸드 활용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디지털트(빵·과자·음료 등)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해당 분야의 창업 3년 미만 기 창업자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료 시 아카데미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으로, 브랜드, 메뉴관리, 위생 및 MOT, 슛폼

제작 및 홍보마케팅, 현장실습까지 창업실무에 필요한 여러 교육을 내년 2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창업 아카데미는 필요한 지식 외에 현실적인 실무 노하우 및 1:1 맞춤형 멘토링을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오는 17일 우석대학교와 함께 푸드투어를 운영한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 순창으로 푸드 투어 떠나보세요

### 순창고추장볼고기·오란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소개

순창군이 오는 17일 우석대학교와 함께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푸드투어(Food tour)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문제를 대학, 지자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혁신 자율과제(RIS)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순창의 경우 '미식관광프로젝트'를 통해 순창의 다양한 식문화를 알리고 음식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1일 미식투어는 그동안 순창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프랑스 가이드인 레이모로가 영어로 참가자들에게 순창의 관광지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체계산 출렁다리를 둘러보고, 이일일 세프가 만들고 쓰양이 먹은 순창고추장볼고기를 맛보며, 향토자원을 활용한 떡과 오란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순창미식투어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월 1회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순창의 10미, 별미 등을 계절에 따라 맛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순창의 숨겨진 맛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62)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10,000원으로 참가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관광 트렌드가 관광지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 맛집투어, 빵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관광으로 확장된 만큼 순창군도 다양한 먹거리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선정

남원소방서(서장 소재)는 지난 11월, 2023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23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11월 한달 진행했으며, 관내 6개 초등학교에서 152명이 참가했다. 작품심사는 한국미술협회 위원을 초빙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불조심에 대한 창의성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정했으며, 최우수상은 윌라초 강민서, 우수상은 용성초 박은서, 윌라초 김재현 및 장려상 10명과 입선 10명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작은 전라북도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다. 소재일 서장은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임실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환경안전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놀이터, 영유아 보육시설 등으로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군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임실 내 주요 놀이시설 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부식 및 노후 여부 △쓰레기·마감재 유해화학물질 함유 및 실내공기질 농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시설 개선이나 기준 준수를 명령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내 시설을 증축, 수선 시 이행해야 할 확인검사제도, 환경인증제품 사용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어린이집 대상 올바른 손씻기 교육

순창군은 4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예절 교육을 실시한다.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호흡기 질환 및 설사 질환 발생을 20~30%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겨울철은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유행하는 시기로,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 특성상 감염병 예방수칙의 일상 속 생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의료원은 어려서부터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를 위해 어린이 맞춤형 동영상 시청 교육으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의 중요성을 쉽게 알려주고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